



예배 순서

1부 9시30분, 2부 11시

설교: 이태경 담임목사, 2부 사회: 홍성종

예배로의 초대 Prelude* / 목도

<찬양과 기도>

찬 송 Hymn* /

32장 “만유의 주재”

인 사 Welcome*

경배와 찬양 Song of Praise

신앙고백 The Words of Confession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기도 Prayer / 1부: 박진규, 2부: 김춘식

<말 씬>

성경봉독 Reading of Scripture /

요 4:25~30, 39~42

찬 양 Choir / 주찬양성가대

“주 능력 안에 모든 일 할 수 있네”

말씀 선포 Sermon / 이태경 목사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도 Pastoral Prayer / 이태경 목사

<예물봉헌>

봉헌송 Hymn* /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예물봉헌 Offering, Prayer of Thanksgiving* / 해주용

<축 도>

마침 찬양 Closing Hymn* /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축 도 Benediction*

교회 소식 Greetings and Announcements

식사기도 / 김순애

* 일어서서

내 인생에 불현듯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제외하고 해석하기 힘든 순간들”

우리 집은 불교였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배웠다. 당연히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배우며, 창조론이 말이 되나며 실소를 띄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가지게 되었다.

불교 가정, 진화론에 익숙한 삶

사실 돌아해보면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기회는 많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니던 학원 아래 지하에 있던 교회에 목사님으로 보인 분이 와서 교회에 나오라고 했을 때, 그냥 싫고 무서워 도망친 기억이 있다.

고등학교 때에는 친구의 초대로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찾아 연극도 보고 예배당 내부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군대에 가서는 초코파이 주는 개수에 이끌리어 여러 종교를 자유롭게 접했다.

유학 오기 전에는 과후배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돌아해보면, 이 모든 기회들이 2014년 가을을 위해 미리 잘 짜인 계획인 듯 싶다.

2014년 가을은 박사과정을 앞둔 나에게 있어 너무나 힘들었던 계절이었다. 모든 것이 꼬였다. 미리 준비한다고 한 집 계약에서부터 백신 접종, 학교 등록, 심지어는 코스트코에서 산 시리얼 박스마저 뚜껑이 없는 불량품이었다.

유학 초기에 찾아온 거듭된 시련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이 계속되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낄 때, 나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바로 살롬가정교회를 비롯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찬양과 설교 말씀들이었다. 말씀과 찬양을 듣고 있으면 내가 너무 미약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순간이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동안 고난으로 여겨졌던 모든 과정이 축복으로 바뀌는,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경험이었다. 아멘!

이즈음 현실적 문제들이 해결되자 근본적

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과연 무엇 이기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실까?” 사실, 집안 사정이나 나의 능력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외국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었다. 나는 너무 나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되었다.

미약한 존재 깨달고 눈물 흘려

나는 여전히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고 바로 앞 일만 바라보기에 급급하다. 또 계속 쓰러지며, 의심과 원망도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시고, 허물마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내가 가진 모든 근본적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서는 해석하기가 무척 어렵다. 나는 너무 나약하고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분은 강하고 영원하시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더욱 굳건한 믿음인 것 같다. 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 많이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글: 정지훈

플로리다 주립대 박사과정(지리학) 재학 중이다. 아내 박지선과 슬하에 지난해 7월 탈라하시에서 태어난 아들 태하(Lucas). 살롬가정교회와 방송반에 속해 있다. 좌우명은 “겸손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지난주 예물봉헌 OFFERING >>>

십 일 조: 이승모/손명례, 홍성종/장금복, 권찬원, 이세훈/안지원, 이재훈/정인희, 오상식/오정숙, JOYCE 신

주일헌금: 이태경/이하나, 이희상/이은숙, 주정민, 김보희/김민철, 김경민/정혜원, 이성은, 송현지, 박진규, 무명

감사헌금: 홍성종/장금복, 김대상, 조기웅, 해주용/정경선, 김주영/이상은, 김덕윤/김선경, 박진규/이태경, 류경식, 신희섭/신재인, 김영호/이화옥

선교헌금: 이승모/손명례, 김대상(형가리), 은혜(DAVID, 임), 미순 카터(고동훈)

교회발전기금(지봉교체 지정헌금): 이재훈/정인희, 이세훈/안지원, 김덕윤/김선경, 이희상/이은숙, 박진규/이태경, 권진중/김정화, 백인수/이지원

†헌금총액: \$4,153.00 / 십일조 \$1,669, 감사헌금 \$660, 주일헌금 \$372, 선교헌금 \$240, 주일학교/중고등부 \$12, 교회발전기금(지봉교체 지정헌금) \$1,200

재정통계 FINANCIAL SNAP SHOT (최근 4주) >>>

2/12 - \$4,153.00 2/5 - \$4,298.25 1/29 - \$3,016.00 1/22 - \$3,555.05 지봉교체 지정헌금 누적액 (2/12 현재): \$4,635.05

†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따로 헌금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마련한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